

송년 주일 / 성탄절 후 첫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OF CHRISTMAS

주후 2023년 12월 3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01 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46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86 번 요한계시록 14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어린이설교 Children’s Sermon		인도자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Romans)13:1-7	임필재 집사
찬 양 Anthem	“그래도”	찬양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Being A God’s Servan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450 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통일 37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편협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주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삶으로도 진정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지 않고,

행함으로도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이 땅에 참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2: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네가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개역개정 롬13:4)

“For he is God’s servant to do you good. But if you do wrong, be afraid, for he does not bear the sword for nothing. He is God’s servant, an agent of wrath to bring punishment on the wrongdoer.” (NIV Romans 13: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31 (주일)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대하36	창1	창2	창3	창4	창5	창6
본문	계22 말4	마1 스1	마2 스2	마3 스3	마4 스4	마5 스5	마6 스6
	요21	행1	행2	행3	행4	행5	행6

송/구/영/신/예/배

송구영신예배(12/31토 오후11:15)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사61:10-62:3)

신년 특새.(1/2화-1/6토 오전6:30) 주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에 동참하라”

지난 주일(12/24, 성탄주일)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로마서 16:25-27)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며, (동시에)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문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분명 3구절(25절, 26절, 27절)로 나뉘어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기록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는데”(롬16:25) 이 비밀과도 같은 복음, 곧 감추어진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참고, 롬 12:4)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세상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의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처럼, 그리고 막연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닌, (이제 분명히) 계시된 신비로서.., (더 이상) 막연한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메/모